



'중외공원 시대' 여는 광주시립미술관

☞ 문턱을 낮춰라

열린 공간 '찾아 오는 미술관'으로

미술관의 핵심적인 기능 가운데 하나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통해 미술 잠재 수요층을 개발하고 시민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최근 국·공립 미술관은 물론 사립 미술관들이 다양한 미술체험 프로그램과 문화 강좌를 개설, 운영함으로써 미술관을 열린 공간으로 조성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광주시립미술관은 시민 프로그램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빈약하게 운영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최근 미술시장이 활성화되면서 다양한 미술분야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시립미술관이 수년째 운영하고 있는 시민미술 프로그램은 '누드 크로키'와 '도예체험 교실' 뿐이다.

이 때문에 시립미술관 홈페이지에는 한국화, 유화, 서예 등 다양한 미술프로그램을 진행해줄 것을 요청하는 시민들의 주문이 잇따르고 있다.

또 이들 강좌가 오후 2~5시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운영됨으로써 직장인들의 참여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감안, 시간대별로 다양한 강좌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시민들에게 문화향유 기회 제공



광주시립미술관이 열린 미술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광주시립미술관의 도예체험 교실.

를 폭넓게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공립미술관으로서 미술을 감상하고 즐길 수 있는 안목을 길러주는 미술이론 강좌가 없다는 것도 아쉬운 부분. 이 지역에서 웬만한 미술 실기를 배울 수 있는 곳은 많지만 일반인들이 이론강좌를 들을

수 있는 곳은 현재 대학을 제외하고는 없기 때문이다.

최병식(경희대 미대) 교수는 "시설 기관이 개설하기 어려운 미술이론 강좌를 공공의 영역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며 "수준 높은 이론강좌는 미술관을 차별화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주연 삼성리움선임연구원은 "어린이들의 호기심을 유발하는 프로그램도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 미술에 대한 안목을 키워줄 수 있는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한다.

광주시립미술관을 시민들이 즐겨찾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장소를 활용한 마케팅도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새 광주시립미술관이 다양한 용도로 사용가능한 공간을 갖추고 있는 만큼 회의장이나 모임, 행사장소로 시민들에게 개방함으로써 '열린공간'을 지향해야한다는 지적이다.

광주시립미술관을 시민들이 즐겨찾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장소를 활용한 마케팅도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새 광주시립미술관이 다양한 용도로 사용가능한 공간을 갖추고 있는 만큼 회의장이나 모임, 행사장소로 시민들에게 개방함으로써 '열린공간'을 지향해야한다는 지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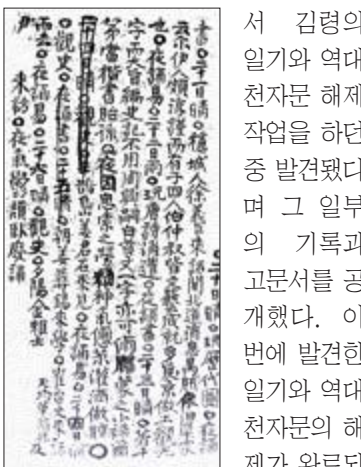
한주연 삼성리움선임연구원은 "어린이들의 호기심을 유발하는 프로그램도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 미술에 대한 안목을 키워줄 수 있는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한다.

신안 입자도서 '역대천자문' 발견

조선시대 천자문과 다른 '역대천자문'이 신안군 입자도에서 발견됐다.

신안군은 "조선전기인 1862년 입자도에 유배와 1863년 음력 2월 입자도 진리 박윤량의 초가에서 김령의 의뢰 완성된 역대천자문이 발견됐다"고 10일 밝혔다. 역대 천자문(歷代千字文)이란 유배는 김령이 중국과 우리나라 역대 왕조의 흥망성쇠를 1천자로 압축해 지은 한문 입문 교육서로, 기존 중국 후량(後梁)의 주흥사(周興嗣)가 만든 천자문에 들어있는 글자와 단 한자도 겹치지 않는다.

신안군은 이 역대천자문이 최근 신안군 입자도 성현장 서초당 기념회에



면 유배 생활의 전모를 파악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안=조남기기자 wncho@kwangju.co.kr

애증의 한일 관계사 조망

일본문화연구센터 등 12일까지 전남대서 심포지엄

엮히고 싶지 않은 한·일관계에 장밋빛 미래는 없는 걸까. 한·일관계를 되돌아보고 미래를 그려보는 인문학 행사 '애증의 한일교류-조선통신사부터 온사마까지'가 12일까지 전남대 인문대에서 다채롭게 펼쳐진다.

광주일보가 후원하고 전남대 일본문화연구센터·일어일본학과 등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전국적으로 치러지고 있는 '2007 인문주간'(10월 8~13일) 행사의 일환으로 치러진다.

11일 오후6시 열리는 강연에서 구라치 가즈나오 오카야마대 교수는

"통신사가 본 일본"을, 권혁의 서훈역사박물관 연구원은 "조선에서 온 사립업사"를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12일 오후6시에는 '일본인은 한국을 어떻게 보아 왔는가'를 주제로 심포지엄이 개최된다. 심포지엄에서는 지명관 전 한림대 일본학연구소장이 기조 강연을 펼치고 장대균 숙토평대 교수와 오구라 기조 교토대 교수 등이 주제 발표를 하게 된다. 이와 함께 '조선통신사 관련 자료', '일제강점기 조선 풍속', '한류 드라마 및 영화 관련' 전시도 열린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오늘의 작품

태국 아논 파이로트 작 '셀(Cell) 의자'

의자, 살아숨쉬는 생명체

아논 파이로트가 출품한 '셀(Cell) 의자'는 사물의 외형을 디자인하는 것에서 벗어나 사물의 본질에 감춰진 내면을 예술적으로 승화한 작품이다.

의자의 골격을 이루고 있는 생명체의 세포(Cell) 모양은 의자가 가구가 아니라 살아숨쉬는 생명체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

광범한 사물의 본질을 디자인으로 소화해온 아논 파이로트는 이번 전시에서 '셀 의자'를 비롯해 '셀컬렉션' '호를' 등 연작도 선보이고 있다.

아논 파이로트의 이같은 작업은 '현대인들에게 예술적인 감흥을 불러 일으켜 심미적인 행복감을 창조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79년 태국 방콕에서 태어난 아논 파이로트는 방콕의 김공우드대학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한 뒤 국제적인 디자인 프로젝트에 다수 참가한 아시아의 대표적인 디자이너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조대 출신 연극인들의 관록

박윤모·김종진 씨 등 '포커스 씨어터' 창단... '마지막 겨울' 첫 무대

13일까지 공동예술극장

세 번이나 목숨을 끊으려 했던 한 여자는 '아침'이 가장 두려운 사형수를 만난다. 열 다섯 살 이후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트렸던 사건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던 그녀는 그를 통해 응서를 배우고, 세상이 자신을 외면했다고 저주하던 그는 그녀를 통해 세상에 사람이 있음을 깨닫는다.

13일까지(평일 오후 7시30분, 토요일 3시·6시) 공동예술극장에서 공연되는 연극 '마지막 겨울'(극본·연출 김종진)은 공지영의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을 원작으로 한 작품이다.

'마지막 겨울'은 중견 연극인 박윤모 씨를 비롯, 차두음·김종진씨와 조대 연극반 출신들이 주축이 돼 창당한 '포커스 씨어터'의 창단 작품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연극은 사형수 교화 활동을 펼치고 있는 수녀인 고모를 따라 구치소를 찾은 이수정과 사형수 정운수가 조금씩 마음을 열아가는 과정을 보여준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을 원작으로 한 연극 '마지막 겨울' 연습 장면.

다. 광주 여배우 중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이수정 역의 정경아씨와 수녀역의 정은희씨는 안정적인 연기를 보여주며 정운수 역의 유정하씨도 가능성을 보여준다.

하지만 1시간 10분이라는 짧은 공연 시간 탓에 주인공들의 감정이 쌓

일 시간적 여유가 없이 갑자기 클라이막스인 사형 장면이 등장, 관객의 몰입이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 극이 끝나는 건 아쉽다. 또 주인공들의 등장 후 보여주는 슬라이드는 극의 흐름을 끊어 버려 난대 없다는 느낌이 든다. 문의 062-222-7716.

/김미연기자 mekim@kwangju.co.kr

Happy Time 영화안내 (Movie listings banner)

메가박스 (Megabox listings)

엔터시네마 (Enter Cinema listings)

컬럼버스시네마 (Columbus Cinema listings)

씨너스전대 (Cinemas listings)

무등극장 (Mudeung Theater listings)

제일시네마 (Jeil Cinema listings)